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4호 2002년 2월 18일 발행인 민상기

▶일본연구동향

明治維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幕末維新政治史의 새로운 研究動向

박훈(서울대동양사학과강사)

1. 明治維新평가와 일본지식사회

명치유신은 일본을 근대로의 길로 이끈 정치변혁이었다. 사건사적으로는 명치유신을 1867년 12월에 일어난 ‘王政復古 大號令’, 즉 초오슈번(長州藩)과 사츠마번(薩摩藩)에 의한 궁정쿠데타와 그 이후 戊辰戰爭이라는 내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가리키지만, 넓게 봐서 명치유신은 1830년대의 天保개혁기부터 명치초기에 제반 정치개혁이 진행되어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흔히 ‘막말유신정치변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명치유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오랫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쟁거리였다. 이 문제에는 유명작가나 언론도 관심을 갖고 각자의 견해를 발표해왔기 때문에 단지 학계뿐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가 간여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거칠게 말해서 명치유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로 나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善惡史觀을 갖고 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에 이런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는 명치유신에 대한 연구, 명치유신에 대한 입장이 처음부터 정치적 동기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명치유신을 본격적으로 학문적 영역에

서 연구하기 시작한 戰前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인 講座派·勞農派는 각각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본사회혁명의 구상에 따라 명치유신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실증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성격규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先驗的인 정치체제를 전제로 하고 그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실증적 연구가 수행된다는 顛倒가 발생했던 것이다.

講座派·勞農派는 자신들의 혁명구상에 따라 명치유신의 성격을 각각 절대주의 변혁, 부르조아 혁명으로 규정했지만 양쪽 다 명치유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에 의해 탄생한 근대일본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패전전에 유행했던 皇國史觀에서는 명치유신을 7백년 ‘武門의 專橫’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의 주권자인 천황에 정권을 돌려준 ‘快舉’로 일방적으로 현창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사회에서는 명치유신에 대한 입장만을 듣고도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같은 사태는 패전 후에도 비슷한 구도로 계속,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패전전의 강좌파를 주로 계승한 전후의 ‘근대적 역사과학’을 주창하는 역사학자들은 치밀한 실증과 다채로운 방법에 의해 명치유신연구를 심화시켜 왔으나, 명치유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성과를 비판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stance)를 깨는 것은 터부시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歴史學研究會'라는 단체를 주축으로 결집하여, 주요대학의 포스트를 장악한 이들이 생산해 내는 명치유신에 대한 연구와 그에 기반한 이미지는 역사학계의 주류적 견해로서 오랫동안 일본 지식사회에 군림해 왔다.

이러한 명치유신상에 대한 반발은 주로 역사학계의 외부, 나아가서는 학계의 바깥에서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國師'라고 일컬어지는 작가 司馬遼太郎(시바료오타로오)이다. 그는 명치유신을 전후로 한 시대를 배경으로 수많은 역사소설을 남겼는데, 그가 만들어낸 사카모토 료오마(坂本龍馬)의 이미지는 명치유신을 진취, 합리적 정치변혁으로 인상지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학계의 주류적 견해가 1930년대 일본군국주의의 대두는 명치유신이라는 불완전한 정치변혁에 이미 그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데 비해, 시바료오타로오는 명치유신을 일본에 근대를 가져오고 민족적 독립을 유지시킨 혁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930년대 일본군국주의는 일본근대의 歴史途程에서 一時期의 逸脫이라고 파악한다. 이 양자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業種(?)이 다르다는 점도 있어서인지, 아니면 서로를 이미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고 포기(?)해서인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이상에서 필자는 일본사회에서 명치유신평가라는 문제가 갖는 의미와 그 실태에 대해 약간 언급했지만, 그러한 '構圖'에 어떤 전환점이 오고 있음을 요즘 느끼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이후, 90년대 일본역사학계의 변화는 매우 두드러진데, 주류였던 좌파역사학계의 결속력이 완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적 결속력의 이완 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방법, 연구영역을 보면 이미 단일하고 특정한 言說體系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 도전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마르크시즘의 냄새를 맡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명치유신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터부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골적인 내셔널리즘의 주창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유명해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들이 그들인데, 이

들은 명치유신 뿐 아니라 일본의 전역사를 과장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 그 핵심멤버가 문학, 교육학, 정치학전공자들로 비역사학자가 주축이라는 점이 이런 과감한 발상을 가능케 했다고도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교과서채택에서의 그들의 참담한 실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일본지식사회의 진정한 실세가 아니며, 일종의 변두리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사회가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앞서 소개한 주류적 역사학자집단을 일본의 좌익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항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을 일본의 우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일본지식사회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좌파적 지식인의 헤게모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새역모' 같은 어설론(?) 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냉소와 경계를 감추지 않는 지식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 시민권을 획득한 호칭은 아니나, 일본사회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칭을 그대로 빌려 임시로 이들을 '요미우리(讀買)·중공(中公)그룹'이라고 부르겠다. 이들은 주로 요미우리신문과 中央公論社에서 발행하는 각종 출판물을 무대로 활약하는 전현직 대학교수, 언론인, 평론가등이다. 이들은 아직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일본의 국익, 강한 일본이라는 목표를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논리와 고도의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또 대학이나 언론등 일본사회의 주요포스트에 다수가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지식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그룹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明治維新像에 필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이하에서 소개할 막말유신정치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동향은 이들의 명치유신상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이 많다.

이상에서 명치유신이라는 정치변혁을 둘러싼 일본 지식사회의 견해와 그 입장차이가 갖는 의미를 개괄해보았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 이데올로기의 강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치유신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 기존의 연구들을 벗어난 새롭고도 참신한 연구들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다.

幕末維新정치사연구는 오랫동안 '明治維新主體形

成論'이라는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幕末維新期 정치변혁을 추진한 세세력을 尊攘派, 改革派, 討幕派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구의 주안점은 諸勢力의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討幕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놓여져 있었다. 즉 어떤 정치집단의 言說에서 '討幕'을 주장하는 것이 발견되면 討幕派로 취급되어 그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정치집단의 정치노선은 정국의 변화에 따라 토막을 주장했다가도 철회하기도 하고, 내심으론 토막을 생각하면서도 절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방법은 실태 파악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明治維新주체형성론'의 연구는 당연히 維新을 주도한 薩摩, 長州에 집중되었다. 이들에 관련된 사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겨져 있었고, 권력을 장악한 이들에 의해 그 사료들이 우선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도 큰 이유였다. 이러한 연구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학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류적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부터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계급사관적 시각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공통점은 그것 뿐이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하, 새로운 연구경향을 대표하는 몇가지 연구를 소개해보기로 하겠다.

2. 幕末維新政治史의 새로운 동향

(1) 國民國家論과 民族主義論의 視角

이것은 明治維新을 절대주의적 국가체제의 수립과정으로 보는 주류의 講座派시각을 벗어나, 明治維新을 식민지위기를 극복하여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달성한 민족주의적 사회변혁으로 위치지운다. 여기서는 국민국가건설의 여러 機制들이 주목되고, 내셔널리즘의 형성요인과 과정이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전자의 연구로는 西川長夫編(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한 각 기체들이 분석되었는데 신문, 학교교육등의 사상/정신적 측

면, 경찰,군대등의 사회제도적 측면들이 주목되었다. 이같은 계열의 연구는 90년대초반부터 크게 유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근대역사학이 자명의 전제로 여겨왔던 국가,국경,민족,국적등의 개념을 상대화시키고 그 역사성을 폭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근대역사학에 대한 자기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국민국가,민족개념의 해체를 주장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민국가의 틀은 강고히 잔존해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기본적인 지배력은 유지되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효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후자의 연구로는 三谷博(1997)의 연구가 있다. 氏は 明治維新의 최대의 특징은 내셔널리즘에 있다고 보고, 일본근대 국가건설을 推動했던 가장 큰 요인은 내셔널리즘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본내셔널리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에도후기를 분석한다. 氏は 베네딕트 앤더슨이 『想像의 共同體』에서 선보였던 방법을 이용하여, 에도시대에는 출판업이 크게 융성하고 독서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앤더슨이 말하는 '출판자본주의'에 해당될 만한 사회현상이 관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라시바이(村芝居)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까지 성행하였다. 무라시바이는 각 지역에서 京都語로, 역사물을 공연하는 것에 의해 일본열도의 구성원에 공통의 상상,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게 했다. 이처럼 책, 그림, 판화('출판자본주의'에 포함)등과 무라시바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 에도후기에는 일본열도의 주민들사이에 일본이라는 국가개념, 그 역사에 대해 '想像의 共同體'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토대가 되었기에, 서양세력이 진출했을 때 급속히 근대적 내셔널리즘으로 전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氏は 또한 명치유신변혁과정에서의 사망자수가 프랑스혁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 廢藩置縣이라는 사무라이 계급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에 사무라이들이 반발다운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명치유신과정에서 커다란 내전이 없었다는 점등이 명치유신이 계급혁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민족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짙게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그간의 명치유신연구가 식민적위기로부터의 탈출과 근대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명치유신의

민족혁명으로서의 성격을 너무 간과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2) '公議輿論'의 중시

종래의 幕末정치사연구는 尊王攘夷/王政復古의 측면을 중시하고, 公議輿論의 측면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왔으나, 최근에는 日本民主主義의 발단이라는 시점에서 公議輿論의 현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公議輿論이란 종래의 將軍-幕閣(막부수뇌)라인에 의한 정치운영을 '幕私'라고 비난하고, 諸大名세력과 그 家臣까지를 정치운영에 참여시키려고 한 세력들이 내건 구호이다.

尾藤正英(1992)은 에도시대 정치체제에 이미 합계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公論존중의 관습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幕末維新期 公議輿論중시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個'를 존중하는 사무라이계급의 에토스가 그것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三谷博(1997)는 막부를 포함한 幕末諸政治勢力 중 누구도 公議輿論의 명분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公議輿論관념은 정당성을 완전히 획득하고 있었고, 존왕양이와 더불어 明治維新의 주요한 성격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씨는 1864년 초에 京都에 설치된 參預會議를 公議체제수립의 발단이라고 보고, 明治정부도 公議體制的 성격을 띄고 있었으며, 헌법반포와 국회성립이 公議체제의 귀결점이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근대민주주의의 원형을 찾아보려는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들면 1989년 하버마스의 『公共性的 構造轉換』이 英譯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사학계에서는 근대초기의 중국사회에서 '3(公共領域, 公共圈)'를 찾아보려는 연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공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막말명치초의 일본이나 구한말의 조선, 나아가 근대초기의 베트남을 대상으로 행해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미디어/政治空間(場)에의 관심

이상과 같은 公議輿論중시의 현상은 활발한 정치여론의 형성과 그 표현, 정치행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幕末維新期에는 기존의 정치운영세력(幕政에서는 將軍-幕閣, 藩政에서는 大名-重臣-實權役人)을 넘어서, 중하급무사, 나아가서는 상층서민까지 정치에 참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處士橫議'). 그런데 종전에는 정치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계층이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정치여론형성, 정치행동을 지탱했던 인프라적 측면, 즉 미디어와 정치공간(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 최근 10여년간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에 중대한 계기를 부여한 사람은 宮地正人이다. 그가 이후 이러한 연구경향을 리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90년대 초에 제창한 '幕末公論社會論'은 많은 연구자들이 발 딛고 있는 礎石이 되었다. 씨는 종래의 '明治維新주체형성론'에 의한 維新史연구를 '政局史的 政治史'라고 비판하고, '社會史的 政治史'를 제창했다. 여기서 그는 幕末期 農村豪農層間의 정치정보의 유통과 그에 기반한 정치여론의 형성이 幕末정치활성화를 밑에서부터 지탱하여, '公論社會'라고 불릴만한 輿論社會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미디어였던 風說留(風說書)가 놀랄만큼 대량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유포되고 있었고, 그 정치정보의 내용은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이 風說留의 필사, 교환 등을 매개로 호농간의 씨름이 형성되고, 도시 豪商과의 인맥이 형성되는 현상도 벌어졌다(宮地正人, 1999). 幕末정치활성화는 이런 미디어와 그에 의한 정보유통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씨는 정보유통의 인프라의 실태를 좀더 명확히 하기위해, 에도후기 飛脚제도나 書信왕래의 소요기간등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업적을 내놓고 있다(宮地正人, 1994).

藩政레벨에서 정치공간과 미디어에 주목한 연구자는 上田純子이다. 일찍이 井上勝生씨가 長州藩을 소재로 하여, 18세기 후반경 번정운영에서 실무에 능통한 중하급역인들이 번정의 실권을 잡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지만(井上勝生, 1994), 上田씨는 이 중하급역인들의 대두가 번주앞에서의 會議(御前會議)라는 정치공간을 통해서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幕末期에 長州藩에서는 어전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그곳에서 周布政之助 등 중하급역인들

이 실무지식과 언변을 무기로 발언권을 강화하여 변정을 좌우하게 되는 실태를 분석하였다(上田純子, 1998). 이 회의와 토론에 의한 정책결정의 중시라는 현상은 종전의 정치관습(仕來)이나 先格古例에 의한 정치운영과는 다른 것으로, 幕末의 정치적 활성화, 公議輿論중시, 그리고 중하급역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탱했던 제도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씨는 또한 정책결정그룹이외의 자들이 정치의견을 밝히는 미디어로써 上書を 주목하고 그 上程경로를 관찰하였다.

한편, 明治초기정치사에도 이런 관점을 도입한 연구가 나왔는데, 稻田雅洋의 연구가 그것이다(2000). 이 연구는 自由民權運動의 발전을 지탱했던 미디어로서 新聞과 演說을 주목했다. 신문에 의한 정치여론의 형성과 보급, 그리고 演說會라는 정치공간에서의 정치여론형성과 청중의 참여등이 자유민권운동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稻田씨와 같이, 정치변혁을 뒷받침하는 정치문화(미디어/정치공간-場)의 실태와 변화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씨는 신문과 연설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문화의 탄생(新しい政治文化の誕生)'이라는 副題를 달고 있으나, 필자는 특히 幕末정치변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上書(封書), 私塾/郷校등 '잠자고 있던 政治

文化의 復活'이라는 측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고논저〉

- 稻田雅洋, 『自由民權の文化史－新しい政治文化の誕生』, 筑摩書房, 2000.
- 井上勝生, 『幕末維新政治史の研究』, 癡書房, 1994.
- 上田純子, 「幕末の言路洞開と御前會議－萩藩における新たな政治回路創出の試み－」, 『論集きんせい』 21, 1999. 5.
- 上田純子, 「安政五年萩藩における「會議」と政治機構－幕末維新期政治史再考のための一試論－」, 『史學雜誌』 107-6, 1998.
- 西川長夫編, 『幕末維新期文化の收容と變容』, 1991.
- 尾藤正英, 「明治維新と武士」, 『江戸時代とは何か』, 岩波書店, 1992.
- 三谷博,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 山川出版社, 1997.
- 宮地正人, 『幕末維新期の文化と情報』, 名著刊行會, 1994.
- 宮地正人, 『幕末維新期の社會的政治史研究』, 岩波書店, 1999.

▶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

일본자료센터소장자료 목록

범례

1. 본 목록은 2002년2월1일 현재 본 일본자료센터가 소장한 도서 중에서 공구서와 자료, 백서류를 수록한 것이다.
2. 수록은 공구서, 자료, 백서류 순으로 하였다.
3. 총서, 전집, 도서, CD 및 기타는 지면관계상 신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일본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1. 공구서(사전, 연표, 색인, 목록, 총람)

【사전】

- 百瀬 孝, 『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制度と實態－』, 吉川弘文館, 1991
- 百瀬 孝, 『事典 昭和戦後期の日本－占領と改革－』, 吉川弘文館, 1996

伊藤元重〔外〕編集,『日本經濟事典』,日本經濟新聞社,1996

牧野昇 編,『クロニクル日本經濟事典』,東洋經濟新報社,1996

秦郁彦 編,『日本陸海軍總合事典』,東京大學出版會,1991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編,『國史大辭典』(全17卷),吉川弘文館,1979-1997

小泉袈裟勝 編著,『(圖解)單位の歴史事典』,柏書房,1989

沖繩を知る事典編集委員會 編,『沖繩を知る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2000

加藤友康・由井正臣 編集,『日本史文獻解題辭典』,吉川弘文館,2000

下中邦彦 編集,『日本歴史地名大系』(第47卷),平凡社,1982

2 青森縣の地名

3 岩手縣の地名

4 宮城縣の地名

6 山形縣の地名

7 福島縣の地名

8 茨城縣の地名

9 路木縣の地名

10 群馬縣の地名

11 埼玉縣の地名

12 千葉縣の地名

14 神奈縣の地名

16 富川縣の地名

17 石川縣の地名

18 福井縣の地名

19 山梨縣の地名

20 長野縣の地名

21 岐阜縣の地名

23 愛知縣の地名

24 三重縣の地名

25 滋賀縣の地名

26 京都府の地名

27 京都市の地名

29 兵庫縣の地名Ⅱ

30 奈良縣の地名

31 和歌山縣の地名

34 岡山縣の地名

35 廣島縣の地名

36 山口縣の地名

37 徳島縣の地名

38 香川縣の地名

39 愛媛縣の地名

40 高知縣の地名

42 佐賀縣の地名

44 熊本縣の地名

46 宮崎縣の地名

47 鹿兒縣の地名

山口昌男 監修,『日本肖像大事典』(全3卷),日本圖書センター,1999

『號・別名辭典 : 近代・現代』,日外アソシエーツ,1994

野島壽三郎 編,『公卿人名大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4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新訂増補)人物レファレンス辭典 : 古代,中世,近世編』,日外アソシエーツ,1998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日本史人名よみかた辭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9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日本著者名・人名典據錄』,日外アソシエーツ,1989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苗字8萬よみかた辭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8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歴史民俗用語よみかた辭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8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藝能人物事典 : 明治-大正-昭和』,日外アソシエーツ,1998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現代政治家人名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9

日外アソシエーツ編集部 編,『市民・社會運動人名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0

紀田順一郎・井上如・勝又造・末吉哲郎 編,『新現代日本執筆者大事典』,日外アソシエーツ,1992

『邦譯 日葡辭典』,勉誠社,1975

東京大學校史料編纂所 編,『讀史備要』,講談社,1966

『日本國語大辭典』(全20卷),小學館,2001

『逆引き廣辭苑(第五版對應)』,岩波書店,1999

『廣辭苑(第五版机上版)』,岩波書店,1998

浦野起央 編著, 『20世紀の世界紛争事典』, 三省堂, 2001

平井聖 監修, 『〈圖説〉日本城郭大事典』(全3卷), 日本圖書センター, 2000

日蘭學會 編, 『洋學史事典』, 雄松堂出版, 1984

野村純一〔外〕編, 『柳田國男事典』, 勉誠出版, 1998

今泉淑夫 編, 『日本佛教史辭典』, 吉川弘文館, 1999

鈴木敬三 編, 『有識故實大辭典』, 吉川弘文館, 1998

福田アジオ・新谷尚紀 編, 『日本民俗大辭典(上下)』, 吉川弘文館, 2000

鈴木敬三, 『有識故實圖典 : 服裝と故實』, 吉川弘文館, 1996

渡邊直經 編, 『人類學用語事典』, 雄山閣, 1997

【연표 · 색인 · 목록 · 총람】

法政大學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 『新版 社會勞働運動大年表』(全2卷), 勞働旬報社, 1995

市古貞次〔外〕編集, 『日本文化總合年表』, 岩波書店, 1990

高坂正堯・佐古すすむ・安部文司 編著, 『戦後日米關係年表』, PHP研究所, 1995

加藤友康・瀬野精一郎 編, 『日本史總合年表』, 吉川弘文館, 2001

對外關係史總合年表編集委員會 編, 『對外關係史總合年表』, 吉川弘文館, 1999

川合隆男, 『近代日本社會學關係雜誌記事目錄 : (付) 執筆別索引』, 龍溪書舍, 1997

六國史索引編集部 編, 『六國史索引(三・四)』, 吉川弘文館, 1994

圖書館科學會 編, 『全國短期大學概要論文索引 1950-1984 : 人文科學社會科學編』, 日本圖書センター, 1986

近代アジア教育史研究會 編, 『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 : 明治後期教育雜誌所收中國・韓國・臺灣關係記事 目錄篇』, 龍溪書舍, 1995

『歴史圖書總目錄』, 日外アソシエーツ, 1993-

第2卷 日本古代・中世史圖書目錄

第3卷 日本近世史圖書目錄

第4卷 日本近代史圖書目錄

第7卷 日本史圖書目錄1991~1997 : 古代・中世・近世

『企業・經濟團體關係圖書目錄1945~1993』, 日外アソシエーツ, 1995

『國際關係圖書目錄1945~1994』, 日外アソシエーツ, 1996

I 日本對南北アメリカ

II 日本對ヨーロッパ・アフリカ

III 日本對アジア・オセアニア(上)

國立國會圖書館專門資料部, 『(憲政資料目錄第十七) 齋藤實關係文書目錄 : 書類の部』(全2卷), 國立國會圖書館, 1993-1995

1 海軍・朝鮮總督時代

2 昭和期・日記・傳記資料等

岩波書店刊行, 『國書總目錄(補訂版)』(全9卷), 岩波書店, 1989

女性史總合研究會 編, 『日本女性史研究文獻目錄』(全3卷), 東京大學出版會, 1994

『近代政治關係者年譜總覽 : 追補 戦後編』(全4卷), ゆまに書房, 1998

『(特裝版)帝國陸軍編制總覽』(全3卷), 芙蓉書房出版, 1993

『近代政治關係者年譜總覽 : 追補 戦前編』(全2卷), ゆまに書房, 1998

第1卷 あ-さ

第2卷 し-わ

『近代政治關係者年譜總覽 : 追補 戦後編』(全2卷), ゆまに書房, 1998

第1卷 あ-か

第2卷 き-や

東洋經濟新報社 編著, 『日本社會史總覽』(上・下・別卷), 東洋經濟新報社, 1995

2. 자료

蒲島郁夫 編, 『新昔・全記錄 I II III』, 木鐸社, 1998

富田信夫・楠 精一郎・小西德應, 『新版 日本政治の變遷 : 史料と基礎知識』, 北樹出版, 1983

『資料日本現代史』(全13卷), 大月書店, 1981~1990

第1期 戦争と民衆

第1卷 軍隊内の反戦運動

第2卷 敗戦直後の政治と社會①

第3卷 敗戦直後の政治と社會②

- 第4卷 翼賛選舉①
 第5卷 翼賛選舉②
 第6卷 國家主義運動
 第7卷 産業報國運動
 第2期 15年戰爭と國民動員
 第8卷 滿州事變と國民動員
 第9卷 2・26 事件前後の國民動員
 第10卷 日中戰爭期の國民動員①
 第11卷 日中戰爭期の國民動員②
 第12卷 大政翼賛會
 第13卷 太平洋戰爭下の國民生活
 『新訂増補 國史大系』(普及版)(全35卷), 吉川弘文館
 1 令義解, 1985
 2 日本後紀, 1975
 3 續日本紀 前篇, 1977
 4 續日本紀 後篇, 1976
 5 類聚三代格 前篇, 1972
 6 類聚三代格 後篇 弘仁格抄, 1972
 7 律, 1988
 8 延喜式 前篇 交替式・弘仁式, 1972
 9 延喜式 中篇, 1972
 10 延喜式 後篇, 1972
 11 尊卑分帳 第1篇, 1957
 12 尊卑分帳 第2篇, 1959
 13 尊卑分帳 第3篇, 1961
 14 尊卑分帳 第4篇, 1958
 15 尊卑分帳 索引, 1964
 16 令集解 第1, 1983
 17 令集解 第2, 1983
 18 令集解 第3, 1985
 19 令集解 第4, 1985
 20 公卿補任 第1篇, 1938
 21 公卿補任 第2篇, 1937
 22 公卿補任 第3篇, 1936
 23 公卿補任 第4篇, 1935
 24 公卿補任 第5篇, 1934
 25 公卿補任 索引, 1939
 26 吾妻鏡 第1, 1968
 27 吾妻鏡 第2, 1968
 28 吾妻鏡 第3, 1968
 29 吾妻鏡 第4, 1968
 30 日本書紀 前篇, 1971
 31 日本書紀 後篇, 1971
 32 續 日本書紀, 1971
 33 日本三代實錄 前篇, 1971
 34 日本三代實錄 後篇, 1988
 35 日本文德天皇實錄, 1984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東京大學資料編纂所寫眞帳
 目錄』(全4卷), 東京大學出版會, 1997
 1 總記・宗教・哲學・教育・文學・語學・歴史・
 地理・社會科學・自然科學・工學 1997
 2 史料記錄・記事・日記・系補・家史・皇室
 1996
 3 古文書 1996
 4 索引 1997
 『現代史資料』, みすず書房, 1963-73
 4. 今井清一・高橋正衛 解説, 國家主義運動 1
 5. 今井清一・高橋正衛 解説, 國家主義運動 2
 23. 今井清一・高橋正衛 解説, 國家主義運動 3
 34. 實松讓 解説, 太平洋戰爭 1
 35. 實松讓 解説, 太平洋戰爭 2
 36. 實松讓 解説, 太平洋戰爭 3
 38. 實松讓 解説, 太平洋戰爭 4
 39. 實松讓 解説, 太平洋戰爭 5
 42. 掛川子 解説, 思想統制
 43. 今井清一・伊藤隆 解説, 國家總動員 1
 44. 今井清一・伊藤隆 解説, 國家總動員 2
 45. 奥平康弘 解説, 治安維持法
 大嶽秀夫 編・解説,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全3
 卷), 三一書房, 1991
 第1卷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
 第2卷 講和と再軍備の本格化
 第3卷 自衛隊の創設
 有澤廣巳 監修・中村隆英 編集, 『資料 戰後日本經濟
 政策構想』(全3卷), 東京大學出版會, 1990
 第1卷 日本經濟再建の基本問題
 第2卷 傾斜生産方式と石炭小委員會
 第3卷 經濟復興計畫
 谷川健一〔外〕編, 『日本庶民生活資料集成』(全31卷・
 別卷), 三一書房, 1968
 1 探檢・紀行・地誌《南島篇》
 2 探檢・紀行・地誌《西國篇》

- 3 探檢・紀行・地誌《東國篇》
 - 4 探檢・紀行・地誌《北嶽篇》
 - 5 漂流
 - 6 一揆
 - 7 惡疫・飢饉
 - 8 見聞記
 - 9 風俗
 - 10 農山漁民生活
 - 11 世相(一)
 - 12 世相(二)
 - 13 騷擾
 - 14 部落(一)
 - 15 都市風俗
 - 16 奇談・紀聞
 - 17 民間宗教
 - 19 南島古謠
 - 20 探檢・紀行・地誌〈補遺〉
 - 21 村落共同體
 - 22 祭禮
 - 23 年中行事
 - 24 民謠・童謠
 - 25 部落(二)
 - 26 神社緣起
 - 27 三國交流誌－朝鮮・日本・琉球－
 - 28 和漢三才圖會(一)
 - 29 和漢三才圖會(二)
 - 30 諸職風俗圖繪
 - 別卷 總目次・索引
- 內海愛子, 『朝鮮人BC級戰犯の記録』, 勁草書房, 1982
- 『內閣文庫所藏 海軍省日誌』(全4卷), 龍溪書舍, 1989
- 第1卷 明治九年～十年
 - 第2卷 明治十一年～十二年
 - 第3卷 明治十三年～十四年
 - 第4卷 明治十五年
- 『內閣文庫所藏 陸軍省年報』(全4卷), 龍溪書舍, 1990
- 第1卷 明治八年七月～十三年六月
 - 第2卷 明治十三年七月～十六年六月
 - 第3卷 明治十六年七月～十七年十二月
 - 第4卷 明治十八年一月～十九年十二月
- 付録「軍隊內務書」第二版
- 內田良平文書研究會 編, 『內田良平關係文書』(全11卷), 芙蓉書房出版, 1990
- 第1卷 書簡・電報・關係文書
 - 第2卷 明治期文書(明治34年～39年)
 - 第3卷 明治期文書(明治41年～45年) 大正期文書(大正元年～2年)
 - 第4卷 大正期文書(大正3年～6年)
 - 第5卷 大正期文書(大正7年～10年)
 - 第6卷 大正期文章(大正11年～12年)
 - 第7卷 大正期文書(大正13年)
 - 第8卷 大正期文書(大正14年～15年)
 - 第9卷 昭和期文書(昭和2年～5年)
 - 第10卷 昭和期文書(昭和6年～9年)
 - 第11卷 昭和期文書(昭和9年～16年)
- 「內田良平關係文書」付録「亞細亞時論」第1卷第6號(大正6年12月)
- 石原廣一郎, 『石原廣一郎關係文書』(全2卷), 柏書房, 1994
- 上卷: 回想錄一二・二六事件から東京裁判まで
- 下卷: 資料集
- 南京事件調査研究會 編譯, 『南京事件資料集』(全2卷), 青木書店, 1992
- 1 アメリカ關係資料集
 - 2 中國關係資料集
-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編, 『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全5卷), 龍溪書舍, 1992
- 1 警察廳關係公表資料・外務省關係公表資料
 - 2 防衛廳關係公表資料(上)
 - 3 防衛廳關係公表資料(下)
 - 4 國立公文書館所藏資料・大英帝國戰爭博物館所藏資料・厚生省關係公表資料
 - 5 米國國立公文書館所藏資料・國立國會圖書館所藏資料・各卷資料の概要紹介
- 池田俊彦 編, 『二・二六事件裁判記録: 蹶起將校公判廷』, 原書房, 1998
- 中村隆英・宮崎正康 編, 『史料 太平洋戰爭被害調査報告』, 東京大學出版會, 1995
- 外交時報社 編, 『中國及び滿州關係條約及公文書』(上卷), 龍溪書舍, 1994
- 石井 修・小野 直樹 監修 『アメリカ合衆國對日政策文書集成』, 柏書房, 1990

- 1 日米外交防衛問題, 1959~1960年 (全9卷)
 - 2 日米經濟問題, 1959~1960年 (全11卷)
 - 3 日本の國內事情, 1960年 (全9卷)
- 『腹刻版 憲政公論』(全10卷), 柏書房, 18~
- 1 第5卷 第1~3號 (大正14年 1~3月)
 - 2 第5卷 第4~6號 (大正14年 4~6月)
 - 3 第5卷 第7~9號 (大正14年 4~6月)
 - 4 第5卷 第10~12號 (大正14年 10~12月)
 - 5 第6卷 第1~3號 (大正15年 1~3月)
 - 6 第6卷 第4~6號 (大正15年 4~6月)
 - 7 第6卷 第7~9號 (大正15年 7~9月)
 - 8 第6卷 第10~12號 (大正15年 10~12月)
 - 9 第7卷 第1~3號 (昭和2年 1~3月)
 - 10 第7卷 第4~5號 (昭和2年 4~5月)
- 『復刻板 民政』(全57卷), 柏書房, 1928~
- 第1期 昭和 2~5年
第2期 昭和 6~9年
第3期 昭和10~12年
第4卷 昭和13~16年
- 『東亞連盟復刻板』(全17卷), 柏書房, 1943~
- 1 昭和14年 創刊號~12月號
 - 2 昭和15年 1~3月號
 - 3 昭和15年 4~6月號
 - 4 昭和15年 7~9月號
 - 5 昭和15年 10~12月號
 - 6 昭和16年 1~3月號
 - 7 昭和16年 4~6月號
 - 8 昭和16年 7~9月號
 - 9 昭和16年 10~12月號
 - 10 昭和17年 1~3月號
 - 11 昭和17年 4~6月號
 - 12 昭和17年 7~9月號
 - 13 昭和17年 10~12月號
 - 14 昭和18年 1~4月號
 - 15 昭和18年 5~12月號
 - 16 昭和19年 1臨時號, 2~3月號, 4~5合併號, 6月號, 臨時號, 7月號
 - 17 昭和19年 8~9月號, 臨時號, 10月號, 臨時號, 11~12月號
- 昭和20年 1~2月號, 7月號, 9月號, 10月號
- 『(復刻版) 日本歷史』(全17卷), 吉川弘文館, 1996
- 1 創刊號~第 9號 (昭和21・22年)
 - 2 第10號~第21號 (昭和23・24年)
 - 3 第22號~第31號 (昭和25年)
 - 4 第32號~第43號 (昭和26年)
 - 5 第44號~第55號 (昭和27年)
 - 6 第56號~第67號 (昭和28年)
 - 7 第68號~第79號 (昭和29年)
 - 8 第80號~第90號 (昭和30年)
 - 9 第91號~第102號 (昭和31年)
 - 10 第103號~第108號 (昭和32年)
 - 11 第109號~第114號 (昭和32年)
 - 12 第115號~第120號 (昭和33年)
 - 13 第121號~第126號 (昭和33年)
 - 14 第127號~第132號 (昭和34年)
 - 15 第133號~第138號 (昭和34年)
 - 16 第139號~第144號 (昭和35年)
 - 17 第145號~第150號 (昭和36年)
- 『樞密院高等官履歷 : 國立公文書館所藏』(全8卷), 東京大學出版會, 1996~1997
- 第1卷 明治期ノ一
 - 第2卷 明治期ノ二
 - 第3卷 大正期ノ一
 - 第4卷 大正期ノ二
 - 第5卷 昭和期ノ一
 - 第6卷 昭和期ノ二
 - 第7卷 昭和期ノ三
 - 第8卷 昭和期ノ四
- 伊藤博文關係文書研究會 編, 『伊藤博文關係文書』(全9卷), 癡書房, 1973-1981
- 第1卷 井上 馨他30名收錄
 - 第2卷 伊藤已代治全書簡收錄
 - 第3卷 岩倉具視他75名收錄
 - 第4卷 木戶孝允他50名收錄
 - 第5卷 三條實美他42名收錄
 - 第6卷 原 敬他119名收錄
 - 第7卷 松方正義他60名收錄
 - 第8卷 山縣有朋他131名收錄
 - 第9卷 補遺・總索引
- 伊藤 隆・廣瀬順皓 編, 『近代日本史料選書』(全2卷), 山川出版社, 1981~1995
- I 山縣有朋談話筆記・政變思出草

Ⅱ 松本學日記

廣瀬順昭 監修・編集, 『政治談話速記録 : 憲政史編纂會舊藏』(全10卷), ゆまに書房, 1998

1 安達謙藏氏談話速記・市島謙吉氏談話速記・伊藤仁太郎氏談話速記

2 井上敬次郎氏談話速記・尾崎行雄氏談話速記

3 加藤政之助氏談話速記・木下謙次郎氏談話速記・下野廣舩氏談話速記

4 小久保喜七氏談話速記・來島恒喜五十年忌辰法要追懷談(小久保喜七談)

5 城泉太郎日記・紅秋隨筆談(城泉太郎記)・胎中楠右衛門氏談話速記

6 高田早苗氏談話速記・田川大吉郎氏談話速記・竹越與三郎氏談話速記

7 藤澤幾之輔氏談話速記・穂積重威氏談話速記・元田肇氏談話速記・横山又吉翁氏談話要旨

8 男爵若槻禮次郎談話速記

9 井上侯意見談話演說集(上)

10 井上侯意見談話演說集(下)・解題

日本共産昔中央委員會, 『(縮刷版)月刊しんぶん赤旗』, 日本共産中央委員會, 1961~

朝日新聞, 『朝日新聞縮刷版: 明治編第1期』(全69卷), 朝日新聞, 1988

内務省警保局 編, 『(復刻版)出版警察資料: 昭和10~15』(全15付1), 不二出版, 1982

1 1~2號: 昭和10年 6~7月,

2 3~7號: 昭和10年 8~12月,

3 8~10號: 昭和10年 6~7月,

4 11~12號: 昭和11年 5~6月,

5 13~15號: 昭和11年 7~9月,

6 16~18號: 昭和12年 10~12月,

7 19~21號: 昭和12年 1~3月,

8 22~24號: 昭和12年 4~7月,

9 25號: 昭和12年 8~9月,

10 26號: 昭和12年 10月,

11 27~28號: 昭和12年 11~12月,

12 29~31號: 昭和13年 1~6月,

13 32~34號: 昭和13年 7~12月,

14 35~41號: 昭和14年 1~12月,

15 42~47號: 昭和15年 1~6月

遠藤元男, 『(ビジュアル史料)日本職人史』(全4卷),

雄山閣, 1995

1 織人の誕生-古代・中世編

2 織人の世紀-近世編(上)-舊來のもち

3 織人の世紀-近世編(下)-新規の技術によるもと

4 織人の現在-近代・現代編

共同通信社, 『(寫真集)20世紀の記録: 新聞社が傳えた日本の100年世界の100年』, 共同通信社, 2000

現代日本政治研究會 編, 『レヴアィアサン』(1~28號), 木鐸社, 1995

『平生 三郎自傳』, 名古屋大學出版會, 1996

2001

3. 연감, 연보, 백서

月刊東洋經濟 編, 『日本の企業グループ 98年版』, 月刊東洋經濟 第5475號, 1998

月刊東洋經濟 編, 『企業系列總覽 98年版』, 月刊東洋經濟 第5461號, 1997

月刊東洋經濟 編, 『海外進出企業總覽: 國家別 98年版』, 月刊東洋經濟 第5482號, 1998

月刊東洋經濟 編, 『ASEAN進出企業總覽 '96』, 月刊東洋經濟 第5314號, 1995

大原社會問題研究所 編, 『日本勞働年鑑』, 労働旬報社, 1969~2001

日本政治學會 編, 『年報政治學1997年版・2000年版』, 岩波書店, 1997・2000

通常産業大臣官房調査統計部 編, 『工業統計表』, 大藏省印刷局, 1970~

1 産業編

2 工業地區編

3 企業統計編

4 用地・用水編

5 品目編

朝日新聞社, 『朝日年鑑』, 1997・1999・2000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農林水産省統計表』, 農林統計協會, 1995~1998

労働大臣官房政策調査部, 『労働統計年報』, 勞務行政研究所, 1995~1998

國際協力事業團 編, 『國際協力事業團年報』 國際協力出版會, 1997

通商産業大臣官房調査統計部, 『機械統計年報』, 通商

産業調査會出版部, 1995~1998

勞働省 編, 『勞働白書』, 日本勞働研究機構, 1949~1999

厚生勞働省 編, 『勞働經濟白書』, 日本勞働研究機構, 2000・2001

勞働大臣官房國際勞働課 編著, 『海外勞働白書』, 日本勞働研究機構, 1996~2000

日本勞働研究機構 編, 『勞働運動白書』, 日本勞働研究機構, 1996~2001

經濟企劃廳 編, 『世界經濟白書』, 知性堂, 1976・1993・1994・1997~1999

防衛廳 編, 『防衛白書』, 大藏省印刷局, 1995~2001

外務省 編, 『外交青書』, 大藏省印刷局, 1995~2001

日本情報處理開發協會 編, 『情報化白書』, 日本情報處理開發協會, 1991~2001

經濟企劃廳 編, 『國民生活白書』, 大藏省印刷局, 1957~2000

經濟企劃廳 編, 『科學技術白書』, 大藏省印刷局, 1983・1991・1995~2000

厚生省 編, 『厚生白書』, 厚生問題研究會, 1956~2000

環境廳 編, 『環境白書』, 大藏省印刷局, 1993~2001

中小企業廳 編, 『中小企業白書』, 大藏省印刷局, 1991・1997~2001

木本書店, 『白書の白書』, 木本書店, 1994・1995・1997・1999~2001

情報サービス産業協會 編, 『情報サービス産業白書』, コンピュータ エージ社, 1998~2001

郵政省 編, 『通信白書』, 大藏省印刷局, 1994~2001

通商産業省産業政策局國際企業課 編, 『我が國企業の海外事業活動』(v. 25~28), 大藏省, 1996~

通商産業省 編, 『通商白書』, 大藏省印刷局, 1972~

三菱總合研究所, 『企業經營の分析』(no. 50-56), 三菱總合研究所, 1994

No.50 平成6年度

No.51 平成7年度上半期

No.54 平成8年度

No.55 平成9年度上半期

No.56 平成9年4月期-平成10年3月期決算

■ 국제지역원 홈페이지 자료실 (<http://sias.snu.ac.kr/d/d.htm>)

1. 자료 검색

지역원 소장자료검색 / 신착도서 / Solars검색 / 기타도서관

2. 데이터베이스

Journal List / Multimedia List

3. 전자도서관

해외DB: PolicyFile / PQD / EBSCO online

FirstSearch / Dissertations / InfoTrac / SSI

전자저널 : SIAS / IDEAL / Kluwer

국내학회지 CD-ROM

CD-ROM

4. 유럽연합센터

5. 출판물 안내

지역연구기사DB / 아시아태평양 연보 / 국제지역연구

J'l of Int'l & Area Studies / 뉴스레터 / 전임교수 article

학위논문

6. 자료실 서비스

국제지역연구회원 안내 / 서가배치도

● 문 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

일본자료센터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평, 연구리뷰 등 범위와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